충장로 폐업 속출…상가 곳곳 '임대' 현수막

광주 구도심 상권 쇠락 현장

불황 장기화에 매출 '뚝'

권리금 사라지고 땡처리 성업

"돈버는 사람 리모델링 업자 뿐"

상인들 자조 섞인 푸념도

2일 오전 찾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한 상가 유리창에 이색 현수막이 나붙었다. 전세 1억원만 받고, 권리금은 전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때 유명 커피 전문가맹점이었던 이곳은 1~2층의 집기도 그대로 있는 상태였로. 경기 침체로 빈 점포가 늘다 보니, 폐업을 하더라도 가게가 나가지 않아 이젠 권리금조차 포기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인근에서 2~3층 건물을 빌려 영업을 했던 빙수 가게도 사정은 비슷했다. 권리금은커녕, 1년 6개월 넘도록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매달 월세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동구 구도심 일대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넘었던 권리금이 사라져 가고 있다. 건물주인과의 계약 기간이 남은 일부 상인들은 새로운 가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매달 월세만 내고 있는 곳도 많다는 게 이곳 상인들의 설명이다.

'유명 브랜드 불패'의 공식도 깨지고 있다. 이미 광주 충장로, 금남로 상권에서는 유명 스테이크, 제과점, 아이스크림 체인이 가게 문을 내렸다. 한 스테이크 집은 폐업 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빈 건물로 남겨져 있다.

이날 광주시 동구 구도심 일대를 돌아본 결과 30여 곳의 가게가 문을 닫은 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었다. 한 골목에 1~2집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고, 곳곳에서 업종 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다. 폐업이 잦아 업종 변경과 리모델링 공사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충장로에서 돈 버는 사람은 리모델링 업자와 간판 업자 뿐"이라는 웃지 못할 말도 유행하고 있다.

폐업이 잦아져 오랜 시간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가도 늘고 있다.

영업을 하는 곳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장로 일대에는 보세 옷 가게가 많은데 하루 옷 한 벌 팔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 옷가게 업주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전혀 돈이 돌지 않고 있고, 최근 쇼핑몰 등을 통해 옷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충장로 일대 옷가게의 매출이 과거의 20%도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옷가게의 매출이 줄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이 많다 보니 최근 충장로 곳곳에서는 폐기물이 가득 담긴 특장차가 방치된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부 빈 상가에는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저가에 판매하는 '땡처리 업체'들이 2~3개월 단위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충장로 B공인중개사는 "충장로 상권의 권리금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도 갈수록 새 주인을 찾기 힘들어졌다"면서 "부모 건물을 물려받아 영업을 하는 상가를 제외하고는 상인 대부분이 힘들게 가게 세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돼 개인사업자 생존율은 17.4%에 불과했다. 반면 자영업 창업은 2014년 101만개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0%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인데, 서비스업의 창업이 197만개(20.36%)로 가장 많았고, 폐업은 음식업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2005~2015년, 단위:개)

〈자료:국세청〉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78.94 (-28.45) 금리 (국고채 3년) 1.44% (-0.02)

코스닥 606.06 (-20.32) 환율 (USD) 1149.80원 (+9.90)

2013년산 재고쌀 24만t 사료용 처분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시장 격리하기 위해 생산연도가 오래된 쌀 재고부터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내년 1월부터 2013년산 쌀 재고 24만t을 사료용 쌀로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묵은 쌀 약 10만t이 지난 2월부터 사료용으로 공급됐지만, 내년에는 공급 시기는 한 달 앞당기고 양은 크게 늘린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의 양곡 창고에 쌀 재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9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은 171만t으로, 적정 규모(80만t)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 올해도 벼농사 풍년으로 생산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80kg 기준)은 12만96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1995년 이후 21년 만에 13만원대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료용 쌀 공급가격을 확정해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사료용 쌀을 공급한다.

또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가축 사료용 쌀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수급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료용 쌀이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파쇄한 상태로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 농관원, 수매용 공공비축벼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은 2일 "2016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21만2000t(전국 84만7000t)을 광양시 광양읍 마을 순회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광주·전남 123개 검사반이 775개 검사장에서 매입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물벼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벼 수확 후 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DSC) 등을 통해 산물로 매입하고 있다.

공공비축벼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벼 출하 농가에게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후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차액이 지급된다.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인 4만8280원의 약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수매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비축미곡과 지난해 계속된 쌀 풍작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판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시장격리 미곡을 동시에 매입하는 방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장철 배추 가격 지난해보다 42% 폭등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지난달보다는 하락하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주부들은 김장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11월 배추 10kg의 도매 가격은 6500원 안팎으로 평균 8500원에 거래되던 지난달보다는 2000원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가격 4580원보다는 42%가량 높은 수준이다.

무 가격 역시 상품 18kg에 1만4800원 내외로 지난달보다는 45% 하락하겠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65%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여름 태풍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재배면적도 양배추를 제외하고 배추(-4.4%), 무(-2.4%), 당근(-12.9%), 감자(-15.8%) 등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조사 결과, 올해 김장철 가구당(4인 기준) 소비량은 배추가 22.7포기, 무가 8.7개로 작년(배추 24.2포기, 무 9.3개)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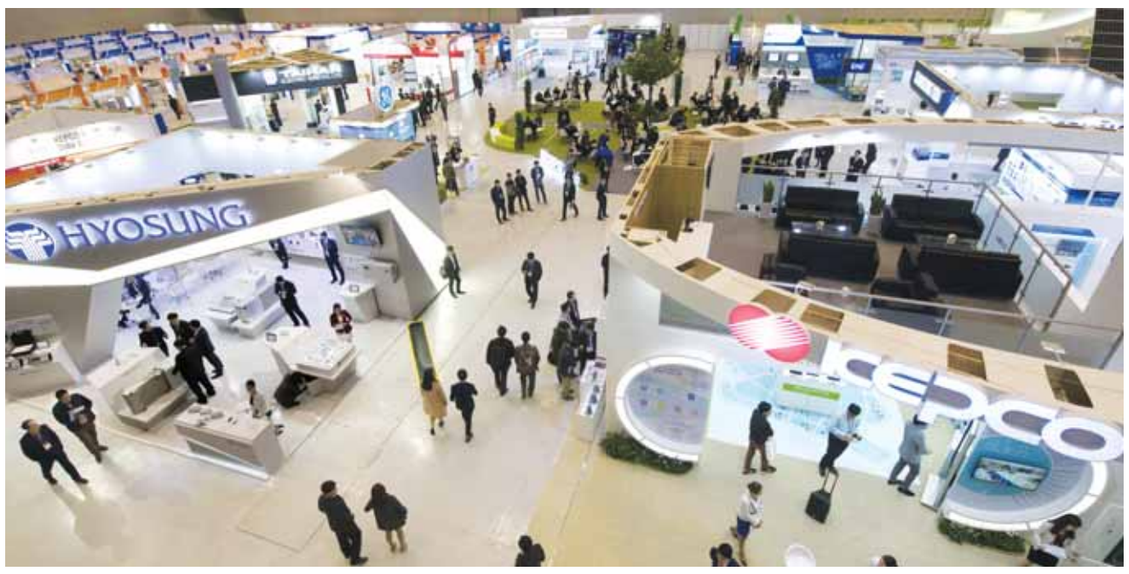
전남도-한전-제주도,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업무협약

전남도와 한국전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손잡고 나섰다.

전남도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장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조환익 한전 사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송전선로 용량 증대 등 전력계통 보강과 신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변전소인 G-플랫폼스테이션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G플랫폼은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변전소 공용망이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남 육·해상 풍력 연계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추진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BIXPO 2016' 내일까지 진행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